

기도

1.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드러나기에 부끄러운 죄성이 있습니까?
2.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

다윗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다(삼하7:12-13).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었다.

구역 공과

2022년 12월 11일

겸손하게 인정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겸손하게 인정하자

사무엘하 15장 13-18절 (찬29장, 292장)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음을 듣자,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과 사람들의 죄성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13절).

다윗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삼하13:14). 하지만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이에 불만을 품어 직접 암논을 죽였고(삼하13:28-29), 다윗은 압살롬을 2년간 연금했습니다(삼하14:28). 이로 인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13절).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고 그 죄를 드러내면, 자신이 밋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죄가 드러날까봐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지만, 그 죄의 흔적이 드러나자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했어도 그 죄의 흔적이 다시 드러날 때 부끄럽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피할 길과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 마음을 빼앗았고(1-6절), 결국 다말 사건을 핑계로 삼아 다윗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여 여러 계략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고(12절a), 많은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라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12절b). 이처럼 죄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죄의 기회가 왔을 때 드러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기회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죄를 경계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했다는 말씀입니다(14-18절).

다윗에게는 유능한 신하들과 용사들이 많았고, 예루살렘을 요새로 삼아 압살롬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후궁 10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습니다(14-16절).

그 이유는 첫째,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법궤가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성막과 법궤가 망가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막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한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워 거룩한 경계를 잘 지키면 다윗에게 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았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네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삼하12:10-11). 따라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겸손한 자들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벧전5:5-6).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겨낼 힘을 구할 때, 회복의 힘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관과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번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 두었지만, 하나님의 책망대로 압살롬에게 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도 하나님 뜻을 인정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나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항상 경계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로 인한 징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